

이제껏 남의 철학을 내가 이해한 대로 소개해오면서 나를 짓눌렀던 어떤 회의가 있다. ‘내가 몸으로 증명하지 못한 일을 남에게 전달하는 일이 위선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이렇듯 성현들의 가르침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이 머쓱하기만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敬·성誠·호연지기浩然之氣 등이다. 그렇다고 그것들이 검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할 실증적 방법이나 사례를 갖고 있지도 않다. 사실에 관한 문제라면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지만, 실천과 수양에 관한 문제는 실효성이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 자신을 포함한 만물이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 기가 유행하는 과정 속에서 잠시 존재한다고 떠들었던 점은 그 앞의 후속 과정으로서 모종의 수양이 뒤따라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게 못하면 자가당착에 빠진다. 이 수양은 내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기도 하다.

더욱이 지혜를 탐구하는 학문에 종사한다고 여기면서도 과연 내가 그것을 깨달아 행복한 인생을 보여주는지 자신감이 없다. 그러던

차에 철었던 젊은 시절의 실수와 미숙함을 반성하고 내 철학이 지향하는 실천적 결론을 맺어야 하기에 나만의 수양에 관한 글을 써보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독서하던 가운데 율곡 선생의 마음공부에 대한 원고 청탁을 받았다.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다. 선생의 수양론이지만 내 공부에 큰 보탬이 되었다.

율곡 선생의 수양론은 한 마디로 선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는 공부이다. 그 특징은 성리학의 논리에 따라 선이 본성으로 전제되어 있어서, 그 본성이 잘 발현되도록 본마음을 회복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공부이다. 그에 따른 마음공부가 필요했지만 결코 몸과 분리된 공부가 아니다. 마음과 몸이 선하지 않는 본능·감정·성격과 무의식의 지배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주체성이 강한 이론이다. 어찌 보면 지나친 도덕적 엄숙주의 같으나 자신에게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하다.

글의 청탁과 함께 쉽게 써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어떤지 모르겠

---

다. 나의 이론이 정리 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않아 증언부언하고 횡설 수설한 것 같다. 선생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 다 쓴 원고를 몇 번이나 읽고 고쳤지만,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더 망칠 것 같아 미숙하지만 이 정도로 세상에 내 놓는다.